

광주 동구청장, 민주전·현직 '리턴매치' 주목

與 현 임택·전 김성한 재격돌...강신기·진선기 가세

국민의힘 양혜령 전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 출마 결심

오는 6월1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시 동구는 청장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현직 청장과 입·북당 인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3·9대선 과정에서 유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섰던 인사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임택 현 동구청장과 강신기 전 광주시기획조정실장, 김성한 전 동구청장, 진선기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등 4파전이 예상된다. 현 청장과 입·북당 인사들의 권리당원 모집 규모, 인지도 등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보인다.

그동안 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택 청장은 재선을 위한 도전을 착각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동구의원, 광주시의원, 동구청장이 맡아주는 화려한 경력처럼 '풀뿌리 정치인'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임 청장은 다정한 행·의정 경력과, 현역 프리미엄,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 7기 임 청장의 가장 큰 성과는 '낙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활발한 도시재생과 인구 10만명 회복을 통한 '살고 싶은 행복 동구'를 만들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며 재선을 통해 광주의 중심구로 동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각오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성한 전 동구청장도 지방선거 재도전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녹색동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평화당 소속으로 나섰다가 현 임택 청장에게 패했다. 이후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김 전 청장은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등 25년간 중앙에서 공직에 몸담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 현 청장과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전·현직 청장 간의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리턴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진선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공천경쟁에 뛰어 들었다. 재선 시의원인 진 의원은 일찌감치 동구에 등지를 틀고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해 왔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서 특보단 단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보와 국민참여플랫폼 광주공동본부장,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지역발전전략특별위원장, 광주동남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오랜 지방 의정경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점으로 대선 과정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조직을 꾸려 바닷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임택 현 청장에게 고배를 마신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도 재도전에 나선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실장은 중앙부처와 지방관사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거를 준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가나다순)



비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2012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전자정부에 구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광주시 기획관,경제산업국장, 시민안전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맡으면서 지역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광주시의원을 지낸 양혜령 전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9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광주시 선대본부 총괄여성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일부 민주당원을 설득해 온 후보 지지를 이끌고 광주 두자릿수 득표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뒤 탈당했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갈아타고 여성 첫 광주 동구청장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주시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양 전 위원장은 2013년 백범 김구 선생의 애민사상과 공동체 회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적용하기 위해 '백화포럼'을 창립하기도 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서구청장, 후보들 합종연횡 '관전포인트'

후보군 난립...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관심

'역대 최대 득표율' 국민의힘, 후보 낼 예정

광주 서구청장은 광산구와 더불어 광주 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손꼽힌다. 사대석 현 서구청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전직 구청장과 전·현직 시의원들, 유력 인사들 다수가 출마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난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독점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서구는 역대 무소속과 기타 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많아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반드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지역에서 보수정당 역사상 최대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도 의욕적으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대석 구청장은 재선 도전을 마음먹은 상황이지만 약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데다가 광주권 역대 최악의 참사 중 하나인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가 관내에서 발생한 탓이다. 민주당이 도덕성 기준과 민심의 동향을 공천 심사 때 대폭 반영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러나 서 구청장으로서의 울 초 실시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밖으로만 벗어난다면 현역 프리미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높은 인지도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현 구청장에 맞서는 당내 후보로는 김보현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

변인,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 장재성·황현택 광주시의원, 임우진 전 서구청장, 배인수 전 서창농협조합장,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 등이 있다.

이 중 김보현 전 균형위 대변인과 김영남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서 구청장과 당내 경선에서 맞붙은 바 있어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임우진 전 서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서 구청장과 격돌한 바 있어 전·현직 간 재대결이 성사될 건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이강 전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역임한 뒤 광주시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특보, 대변인을 연이어 거치면서 시정을 비롯해 공직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평가다.

김보현 전 국가균형위 대변인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광주시의회 재선,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풀뿌리 정치와 중앙정치를 두루 섭렵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에 도전해 서 청장(44.32%)에 이어 2위(28.98%)를 득표할 정도로 당내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장재성 시의원은 서구의회에서만 연이어 3선을 한 데다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8년 서구를 지역구로 시의회로 진출해 부의장까지 지내는 등 서구 풀뿌리 정치에 깊숙하게 뿌리 내린 게 강점이다.

황현택 시의원은 서구의회 재선 출신으로 의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지역 내 신망이 두터운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임우진 전 서구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관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서 구청장과 격돌해 석패했다. 대선을 앞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출마 예상자(가나다순)



고 범진보 '대사면' 기조로 북받쳤지만 당이 대선에 패배해 대선 기여도가 사실상 의미 없게 되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인수 전 서창농협조합장은 5선을 내리 서창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며 쌓은 지역 내 폭넓은 네트워크로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은 6·7대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직전 지선 당내 경선에서 득표율 3위(16.23%)를 기록하는 등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구청장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인수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선거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구청장, 현직 강세 속 단일화 변수 '촉각'

코로나에 도전자 어려움 겪으며 현역 강세

김병내·김용집·박기수·임형진·강창용 '5파전'

올해 광주시 남구청장 선거는 김병내 현 청장이 강력한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지배권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맞수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되는 상황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기수 전 민주당 대선 정무특보단 광주공동본부장, 강창용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출마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선까지 겹치며 도전자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현 청장이 '1강 구도' 상황을 형성해온 가운데 도전자들의 단일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10여년간 강운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뒤 광주시청 직소민원실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든 이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력을 증명해냈고, 중앙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에 부족함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후에는 지역 난제였던 백운고가 철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백운광장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한편 고가도로를 철거한 자리에 푸드스트리트 조성 사업을 벌이며 남구 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광주·전남 최연소 자치단체장 기록을 가진 김 청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올해도 여전히 40대라는 점이 강점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김 구청장에 맞설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인 김 의장은 오랜 시간 광역행정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남구에 뿌리 깊숙이 내린 정치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대외적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 촉구' 성명·건의문 발표를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냈고, 안정적인 의회 경영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 의장으로 재직하며 홍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지역주민과의 소통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 특별위원장,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박기수 전 민주당 대선 정무특보단 광주공동본부장은 TBN광주교통방송본부와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 남구청소년수련관 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안병하기법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등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도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과 긴밀한 관계로 남구 내 조직력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3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한 데 이어 광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 광주시 국제교류센터 상임이사,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풍부한 행정, 의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수 경제 관련 기관장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경제구청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김 구청장이 단수후보로 추천되면서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한 채 목표가 꺾인 바 있다. 임 전 이사장은 당시 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얻은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다시 한번 김 구청장과 맞붙는다는 각오다.

강창용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난해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서 광주 총괄본부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전략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 시민의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시민사회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출마 예상자(가나다순)



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1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남구청장 예비후보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당내 비대위 구성과 원내대표 선임 후 경선 일정이 나올 때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도전자들 또한 당의 경선 일정 확정을 지켜낸 뒤 단일화 등 복잡한 쟁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